



# 지속적인 개발로 수출시장 개척

## ISO 9002 인증 조기 획득

무한 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만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초지일관해 온 (주)보성인더스트리가 지난달 ISO 9002 인증을 획득함과 동시에 100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품질 제일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보성은 1984년 5월 1일 보성산업을 설립하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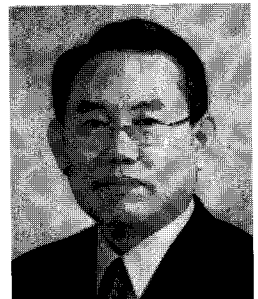
1988년 8월 다색 열전사지 제작 관련 특허 취득을 시작으로 방수포장지 그 제조 방법 및 재생 방법, 취입 성형용 레이블, 전사지 및 그 제조 방

법, 전사 방법 및 이 방법에 사용되는 전사지 등 5개의 특허를 받아 놓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보성이 성장하기까지는 개발이 빠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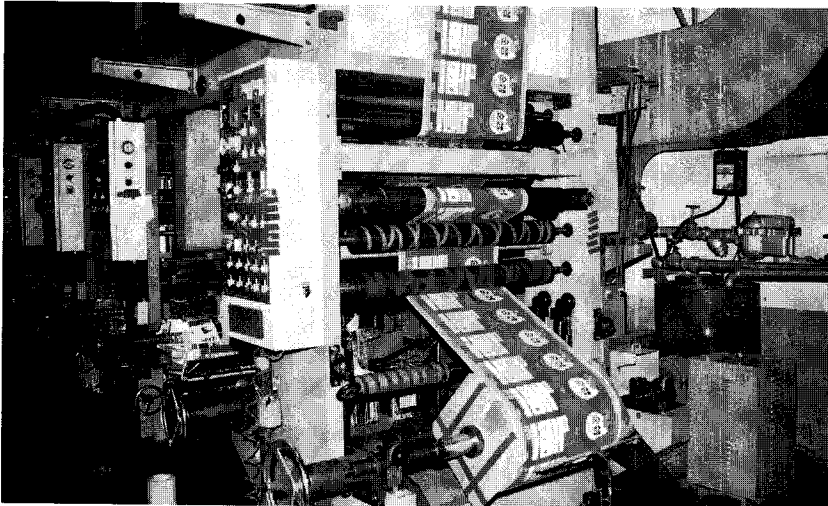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 보성의 임경보 사장은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가져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외국의 각종 포장 박람회나 포장기계 전시회에 관련 부서 직원들을 빠짐없이 참관시키고 있다.

또한 매년 창립 기념일 모범 사원에게는 포상 및 해외 포장 관련 전시회의 견학을 실시, 기술개발과 임직원의 의식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임경보 대표이사

◀ 창립기념일날 실시한 한마음 수련회



◀ 그라비아 인쇄기

이런 지원과 직원들의 의식이 투합돼 올해에는 100만달러 수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내년에도 50% 신장을 목표로 해외시장 개척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은 해외 영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이 까다로운 일본에 고정 거래처를 확보했으며, 필리핀, 대만, 중국, 슬로베니아, 이집트 등 세계 시장에 보성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특히 보성이 생산하는 전사지는 미국과 독일에 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이집트에 처음 수출 물꼬를 트고 물량을 점차 늘려 가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주력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높다.

보성의 성장에는 순탄한 길만이 열려 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IMF체제 초기에 매출이 줄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아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전 임직원이 인고의 노력을 펼쳐 4월부터는 매출이 1억원씩 증가하기 시작, 굳건하고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최근에는 24시간 풀가동해도 물량을 맞출 수 없는 즐거운 비명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지난해 1월 (주)보성인더스트리로 법인 전환을 함과 동시에 2000년대 재도약을 위한 정비 단계로 조직의 개편과 생산성 향상,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ISO 9002 인증을 조기 획득하기도 했다.

임 사장은 어려울 때부터 회사를 성장시키기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ISO 9002 인증 조기 획득을 계기로 전 임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다.

경영만 잘한다고 회사가 커가는 것이 아니고 전 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준대 대한 작은 고마움의 표시라는 게 임 사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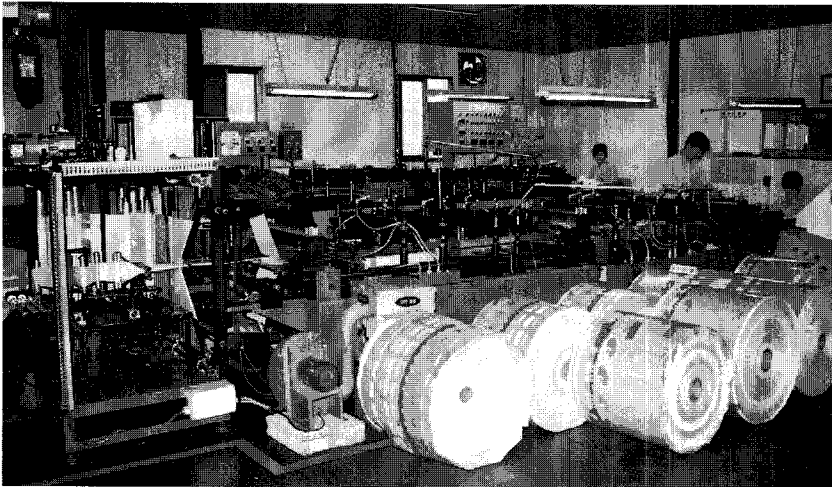
'사람을 사랑하고, 늘 새롭게, 알차게 나아가자'라는 사훈과 '기본 충실과 원칙 존중, 고객 만족 실현, 품질 시스템 유지 발전'의 경영 방침을 실현한 예이다.



◀ 보성의 주력 전사지

[표] 생산 제품 내용 및 특성

제품명	내용 및 특성
다색 열전사지(Heat Transfer Decoration)	폴리올레핀계 수지에 중공 성형후 다양한 무늬나 문양의 라벨을 열로서 전사하는 전사지이다.
스탬핑 호일(Hot Stamping Fppl)	각종 플라스틱 소재의 성형물에 열과 압력으로 미려한 무늬나 문양을 전이시킬 수 있는 필름임
비누 일매지(Soap Wrapper)	화장비누의 포장에 사용되는 Roll제품으로서 기계적 작업의 특징이 최대한으로 보완되어 비누포장의 고속작업이 가능함
파우치 필름(Refill Pouch)	Dry Limi 또는 T-Die를 거쳐 합지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분말상 제품을 닳는 절약형 포장재임
파우치 봉투(Standing Pouch)	Dry Limi 또는 T-Die를 거쳐 합지된 원단으로 제대하여 액체제품을 닳는 입상의 절약형 포장재임
일회용 필름(Dispasable Sachet)	Dry Limi 또는 T-Die를 거쳐 합지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액상 및 Paste상 제품을 닳는 일회용 포장재임
IML라벨(In Mold Label)	내구성이 우수한 Label로서 중공성형시 Label Robot에 의해 공급되어 일체성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Label임
물전사지(Water-Slide Film)	수압을 이용한 이미지 표현의 기술로서 곡면이나 요철면에 전사하는 제품임
일반포장재(General Films)	Dry Limi 또는 T-Die를 거쳐 합지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Film으로 식품, 과자 및 의약품을 포장하는 제품임
수축필름(Shrink Film)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등의 포장에 적용되는 우수한 인쇄성과 수축율이 균일한 제품임
도자기용 열전사지 (Heat Release Decal)	도자기나 유리제품같은 오목한 그릇에 특별히 제작된 기계에 의해 전사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품임



◀ 고품질 제품을 가공하는 제대 시설

임 사장이 강조하는 것 3가지가 있다. 제품개발,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개발에 투자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출하여, 이익 되는 부분으로 직원들의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직원은 한 가족으로 회사와 같이 성장해야 하며 보성의 조건에 맞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임 사장의 소신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창립 기념일에 극기 훈련과 야유회를 격년으로 실시, 단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등 기업과 직원간, 직원과 직원간 서로를 이해하고 밀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보성의 전 임직원은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과 신념에 넘쳐 있다. 부딪치기 전의 포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앞으로 보성은 현재 공장의 과부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2공장을 확보하여 생산 능력 증대와 종업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IMF때

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보성은 거래처의 결재를 미루어 본 적이 없고 결재도 현금 비율을 높여 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100% 현금으로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임 사장은 "회사 규모가 커지고 생산 제품이 인정받는데서 최고의 보람을 느낍니다. 세계속의 보성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세계시장 개척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동종 업체들간 선의의 경쟁으로 공존 공생의 길을 열어 가야 하는데 지금은 과열된 경쟁으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며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수출 확대로 보성만의 자리를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를 둘러보며 보성인들은 스스로 일에 보람을 느끼며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협조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에 정열을 쏟고 여기에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 이것이 보성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원동력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K]